

2022年度 学校評価アンケート自己評価

2023年3月3日

建国小学校

2022年度の学校評価アンケートへの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実施したアンケート結果をもとに、年度当初に出しました重点目標に照らし合わせ、教員の自己評価を行いました。以下の点を教員の共通認識とし、今後改善に努力していきたいと考えます。

今年度、アンケートの設問は昨年度と同じとしました。また、児童アンケートは、ロイロノートより回答、保護者アンケートは、Google フォームからのインターネット回答としました。

○民族的なもの（項目 児童 8, 20 保護者 14, 15）

民族教育に関して、9割以上の児童が、建国での学びが自分のためになっていると評価しました。今年度、全2000語を集めた「絵でわかる韓国語辞典」を作成しました。子ども達が学びやすいように、色、食べ物、職業などカテゴリー別に分類し、韓国語を使う場面から手に取りやすい仕様と大きさにしました。この単語辞典とクレスカードの単語アプリ学習を紐づけ、3年生以上の授業や宿題で活用させ、4年生以上の韓国語単語級数試験にも応用させました。また、新しく単語クイズ形式の学習プログラムも導入しました。教科書の語彙や内容を家庭でも復習できるようにして、語彙力や単語の活用、発展学習に役立てています。このように、独自の教材開発とICTを活用した学習が成果を上げていると読み取れます。また、秋の韓国語イヤギ大会では、一人一人の発表を保護者参加で実施でき、学習の励みとなりました。7月の韓国語能力試験では韓国語1クラスはTOPIK 2（得点により3.4.5.6級合格）を、韓国語2クラスは、TOPIK 1（得点により1.2級合格）をそれぞれ受験しました。その結果、5.6年生の86%が目標を達成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受験時期や試験対策補習などを再考し、次年度につなげます。保護者アンケートでも小学校の民族教育の取り組みや入学後の満足度を保護者の9割以上が高く評価していました。

○英語学習（項目 児童 9）

他の項目と比較すると、児童の英語学習の評価が75%と、昨年度より微増はしたものの少し低い結果でした。昨年度、英語の到達目標を引き上げ、英検対策や文法学習のカリキュラム再編成をして2年目を迎えました。3年生から単語学習Class Cardを取り入れ、英単語を読む（音声）、訳語、マッチングゲームなど、それぞれに目標値を設定し、課題を出しています。一方で英単語のスペリング（書き）やテスト機能（自己採点）は、難しく時間もかかるので、宿題が増えたと負担感を感じている児童が一定数いることも看過できません。Class Cardを有効活用しながら、英語に対する苦手意識を払拭できるよう、学年ごとに1回の課題の量や目標値を見直し、個々へのサポートをより丁寧に行っていきます。12月の英語レシテーションコンテストでは、希望する児童が堂々と英語の発表を楽しみました。1月の英検では、5年生で5級、6年生で4級合格を目標に受験しました。その結果、5.6年生の約80%が目標に達成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また、4級を受検する児童が昨年度の5名から16名に増えるなど、全体的にレベルは上がっています。語学の成果は一朝一夕に出るものではないので、日々の学習の積み重ねを丁寧に行うとともに、より英語が身近に使える環境作りを学校全体で研究していきます。

○学習面（項目 **児童** 2, 3, 4, 5, 6, 7 **保護者** 4, 5, 6, 7,）

保護者アンケートでは、どの項目も9割以上の評価でした。児童の結果でも、授業は分かりやすいと感じ、宿題も自分の力でする習慣がついているようです。しかし、昨年同様、設問4「授業で自分の考えを伝え、意見を発表する」の児童評価が8割に届かず73%でした。今年度、教育アドバイザーの平井総一郎先生を迎え、授業研究、教員研修を10回実施しました。児童が学びの中心となる授業への転換期だと位置づけた1年でした。ペアや小グループで伝え合い、協働し、学ぶ授業は増えています。次の段階では、小さな失敗でくじけるのではなく、原因を考えて修正していく力や物事を批判的に捉える力の育成が課題だと考えています。自らが問いを見出し、問題意識を持って、解決する探求型学習に向けて、今後も研鑽を積んでいきます。

2023年度からは、一人1台の端末を整備できる見通しとなりました。新たに「情報」の授業も新設し、情報活用能力の育成とそれを発揮させる授業の在り方を今後も継続して研究していきます。また、学習アプリについては保護者の方にも操作を体験してもらおう機会を設けたいと考えています。

○人権的学習（項目 **児童** 10, 17, 18, 19 **保護者** 12, 13）

児童アンケートでは、どの項目も9割以上の評価を得ました。道徳で「いのち」「人権」「福祉」に関する学習をしています。人権学習は、外部団体や専門講師の協力を得て、オンラインや対面での学習を実施しました。また、今年度は「いのちの教育」を全学年で1~2回実施し、子ども達が命の尊さや他者との関わり方、思春期の心や身体の成長、自己の内面について学習しました。内容やカリキュラムを検証し、今後も系統的に学べるよう継続していきます。また、児童を取り巻くSNSや情報トラブルについては、全学年で「SNSノート」を活用した情報モラル学習を年6回実施しました。今後は、トラブルの内容や危険性を知っているだけではなく、学校生活や日常生活で自らが判断して、行動できる人となるよう家庭とも協力しながら進めていきます。

一方、今年度、保護者アンケートの12番「子どもの人権やいじめ問題の対応」項目が、昨年度より10%以上評価を下げました。このことから、子ども間のトラブル発生時の対応を教員全体の共通課題とし、児童や保護者の方と連携しながら真摯に対応していくことを次年度の重要課題とします。

○学校生活（項目 **児童** 1, 11, 12, 13, 14, 15, 16 **保護者** 1, 2, 3, 8, 9, 10, 11）

児童の9割が、学校は楽しく、友達と仲良くきまりを守って、充実した学校生活が送れていると読み取れます。コロナ禍の3年間は、学校行事は毎年形式を変えながらの実施でした。子ども達もその対応の変化にしんどさやストレスを感じたことでしょう。今後、感染対策が緩和された後の学校生活への変化にも柔軟に対応できるようサポートしていきます。保護者アンケートでは、学校のきまりや活動、安全教育、学習環境、相談対応などすべての項目で9割以上の評価でした。児童が安心して過ごし、自分の能力を自由に発揮し高められるよう、教員が力を合わせて、より良い学校を作るため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考えます。

保護者の皆様のますますのご理解・ご協力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最後に、今年度の保護者アンケートの回答率は53%でした。1月末のインフルエンザによる学級閉鎖と時期を同じくし、また回答方法をWeb回答とした点もご不便をおかけしたと思います。次年度からは早い段階でお知らせをし、更なる協力を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2022 학년도 학교평가 설문조사 자기평가

2023년 2월 18일

건국초등학교

2022 학년도 학교평가 설문조사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년도 초 안내해 드린 중점 목표에 맞추어 교원 자기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전 교원이 함께 공유하여,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올해 설문조사의 문항은 작년과 같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설문조사는 로이로노트에서 실시하였고, 학부모는 구글로 실시하였습니다.

○ 민족교육 (항목 **학생** 8, 20 **학부모** 14, 15)

민족교육에 대하여 90% 이상의 학생이 건국에서의 배움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총 2000 여개의 단어를 모은 '그림으로 배우는 쏙쏙 한국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기 쉽도록 색깔, 음식, 직업 등 단어를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공부하기 쉬운 구성과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 사전과 클래스카드 단어 어플리케이션 학습을 연계하여 3 학년 이상의 수업이나 숙제에서 활용하게 하였으며, 4 학년 이상이 실시하는 한국어 단어급수시험에도 연계하였습니다. 또 새롭게 단어 퀴즈 형식의 학습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교과서의 어휘나 내용을 가정에서도 복습할 수 있도록 하여 어휘력이나 단어 활용, 발전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자적인 교재 개발과 ICT 를 활용한 학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에 실시되었던 한국어 이야기 대회는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7 월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한국어 1 반은 토픽 2(특점에 따라 3.4.5.6 급 합격)를, 한국어 2 반은 토픽 1(특점에 따라 1.2 급 합격)을 각각 응시했습니다. 그 결과 5.6 학년의 86%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 시기나 시험 대책 보충 학습 등을 다시 고려하여, 다음 학년도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초등학교의 민족교육 노력이나 입학 후 만족도를 학부모의 90% 이상이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 영어학습 (항목 **학생** 9)

학생의 영어학습 평가가 75%로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하였지만, 다른 항목과 비교해보면 조금 낮은 결과였습니다. 작년도부터 영어의 도달 목표를 끌어올려, 영어검정 대책이나 문법 학습의 교육과정 재편성을 한 지 2 년째입니다. 3 학년부터 단어 학습 어플리케이션인 클래스 카드를 도입하여 영어 단어 읽기(음성), 암기, 매칭 게임 등 각각 목표치를 설정해 과제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단어 스펠링(쓰기)이나 테스트 기능은 어렵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숙제가 늘었다고 느끼는 학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클래스 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영어에 대한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학년별로 과제의 양이나 목표치를 다시 검토하여, 보다 신중히 개별지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월 영어 암송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당당하게 발표하였습니다. 1 월 영어검정에서는 5 학년에서 5 급, 6 학년에서 4 급 합격을 목표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5.6 학년의 약 80%가 목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 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작년도 5 명에서 16 명으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학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학습을 쌓아가는 것과 동시에, 보다 영어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 (항목 **학생** 2, 3, 4, 5, 6, 7 **학부모** 4, 5, 6, 7,)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모든 항목이 90%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생 응답에서도 수업은 알기 쉽다고 느끼고, 숙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문항 4 '수업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의견을 발표한다'의 학생 응답이 80%가 되지 않는 73%였습니다. 올해 교육 고문으로서 히라이 소이치로 선생님을 초빙하여 수업 연구 및 교원 연수를 10 회 실시하여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수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짝이나 소그룹으로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동하며 배우는 수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실수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나 비판적 수용 능력 등이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찾으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탐구형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3 학년도부터는 1 인당 1 대의 단말기를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정보」 수업도 신설하여, 정보 활용 능력의 육성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연구해 갈 것입니다. 또한, 학습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학부모님께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권 (항목 **학생** 10, 17, 18, 19 **학부모** 12, 13)

아동 설문조사에서는 모든 항목이 90%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도덕과에서 '생명', '인권', '복지'에 대하여 학습하고 있습니다. 인권학습은 외부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온라인 및 대면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생명 교육'을 전 학년에서 1~2 회 실시하여, 아이들이 생명의 고귀함과 타인과의 관계, 사춘기의 마음과 신체의 성장, 자기 내면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생을 둘러싼 SNS 나 정보 문제에 대해서, 전 학년에서 「SNS 노트」를 활용한 정보윤리 교육을 연 6 회 실시했습니다. SNS 를 둘러싼 사건, 사고나 위험성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정과도 협력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학부모 설문조사 12 번 '자녀 인권 및 괴롭힘 문제 대응' 항목이 작년보다 10% 이상 평가가 낮아졌습니다. 학생간 문제 발생시의 대응을 교원 전체의 공통 과제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와의 연계를 통하여 진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차년도의 중요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학교생활 (항목 **학생** 1, 11, 12, 13, 14, 15, 16 **학부모** 1, 2, 3, 8, 9, 10, 11)

학생의 90%가 학교는 즐겁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규칙을 지키며 충실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3 년 동안은 학교 행사는 매년 형식을 바꾸면서 실시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그 대응의 변화에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감염 대책이 완화된 후 학교생활로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학교규칙과 활동, 안전교육, 학습환경, 상담대응 등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지내며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고 높일 수 있도록 교원들이 힘을 합쳐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더욱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학부모 설문 응답률은 53%였습니다. 1 월 말 독감으로 인한 학급 폐쇄 기간과 설문조사 기간이 겹쳤고, 설문조사 응답을 인터넷으로 진행한 점도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빠른 시일 내에 안내를 드려, 학부모님들이 더욱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